

50년 동안 '잠자던' 길림 5호 운석 모습 드러내다

—길림 운석우 50주년 기념일 행사 길림시박물관에서



길림 5호 운석 모습 드러내

3월 8일, 제 7회 '길림 운석의 날'을 맞아 반세기 동안 잠들어있던 길림 5호 운석이 길림시박물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중에 공개되었다.

1976년 길림 운석우(陨石雨)를 통해 발견된 다섯번째로 큰 운석인 이 '우주에서 온 손님'은 무게가 40.1 킬로그램에 달하는바 그에 대한 공개는 길림 운석우 50주년 기념일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오전 9시, 길림시박물관에서 '길

성(吉星), 50년간 반짝이다'를 주제로 한 길림 운석우 50주년 기념일 행사가 소박하면서도 열띤 분위기 속에 막을 올렸다.

많은 시민과 천문애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짙은 회색을 띠고 불꽃이 거친 길림 5호 운석이 정식으로 상설 전시실에 들어가 이미 수년간 전시되어온 길림 1호, 2호, 3호 운석과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길림시박물관 부관장인 손지신에 따르면 길림 5호 운석은 길림 1호 운석

과 뿌리가 같은바 모두 그 세계적으로 희귀한 운석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학적 측정 결과 이 운석은 무게 40.1 킬로그램으로 덩어리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자리가 뚜렷해 현재 발견된 길림 운석중 다섯번째로 큰 운석이다.

이는 태양계 초기 역사, 행성 형성 및 우주사선조사(宇宙射线照射)력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실물 표본으로 매우 높은 과학적 가치를 지닌다.

50년전, 규모가 거대한 운석우가 길림시에 떨어졌다. 당시 총 138개

의 비교적 큰 운석을 수집, 총무게가 2톤을 넘었다. 그중 길림 1호 운석은 무게가 1,770 킬로그램에 달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석질 운석이다. 이 소중한 우주 자원은 중국 천체물리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과학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도 해왔다.

50년 동안 중국은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길림 운석 샘플을 12개국의 40여개 실험실에 나누어주었으며 중외 과학자들은 천체 진화, 원소 기원, 우주 기술 등 분야에서 손을 잡고 일련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일련의 혁신 제품이 동시에 공개되었다. 운석 요소를 령감으로 디자인된 AI 문화창의 인형 '성보'(星宝), '화보'(火宝), '빙보'(冰宝)가 하나씩 등장하고 안내 해설 및 과학교육 기능을 겸비한 길림 운석 VR 안경도 정식으로 선보였다. 이를 통해 침묵해있던 운석 표본이 대화 및 동반이 가능한 '지혜로운 별빛'이 되어 운석 문화 전파에 기술적 활력을 불어넣었다.

길림시문화라지호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 관계자는 "길림 운석은 그 유일성, 희소성 및 소중함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우리는 운석 문화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길림 운석의 과학적 전파력, 문화적 감화력 및 도시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길림 운석'이라는 이 도시 명함이 더욱 깊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길림일보

반석시, 2026년 '춘풍행동' 특별채용 설명회 개최

최근 반석시취업복무국은 취업 안정과 민생 보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 2026년 '춘풍행동' 특별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채용 설명회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열기로 가득했다. 25개 우수 기업이 소매, 제조, 행정 등 여러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 관리, 기초 서비스 등 80여개의 인기 직종을 제공하고 270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내놓으며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구직자들의 취업 수

요를 충분히 만족시켰다.

구직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리력서를 들고 여러 부스 사이를 오가며 직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급여 수준과 직업 발전 전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여러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도 구직자들에게 기업 개요와 직무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질문에 인내심 있게 답변하며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에 나섰다.

채용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

석시취업복무국은 온라인 사전 홍보, 오프라인 광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업 리스트와 직무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하여 구직자들이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채용 설명회 현장에 정채상담 구역과 직업지도구역을 별도로 마련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정책 해설, 직업계획 조언 등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학졸업생, 전역 군인 등에는 담

당자가 '1대1' 맞춤형 직무 추천과 취업 지원을 진행하여 그들이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채용 설명회에 총 300여명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45명의 예비 채용 의향이 성사되었다. 이를 통해 명칭 이후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효과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인재 활력을 불어넣었다.

/ 길림일보

길림시 설명절 소비시장, 즐거운 쇼핑으로 활력 넘쳐

지난 음력설 연휴 기간 동안 길림시 소비시장은 '품미가 진하고 인기가 높으며 소비가 활발한' 량호한 추세를 보였다.

길림시 관련 부문은 '대동산수 영천하' 주제를 중심으로 '즐거운 쇼핑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는 상무부의 계획과 결부하여 외식, 설 선물, 문화관광, 판촉 등 40여개의 행사를 마련, 다양한 소비 장면과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하여 명절 소비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자극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주요 상권의 류동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성장했으며 핵심 상무 기업의 매출액은 13% 상승하여 시장의 강력한 활력을 보여주었다.

핵심 상권 인기 집중, 데이터 꾸준히 상승

하남가상권은 오래된 상징가와 골목 문화공원을 바탕으로 매일 3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다.

북산 인민광장의 새해맞이 전통 시장은 개장 첫날 방문객이 1만 8,000명을 돌파했으며 매출액은 210만원에 달했다.

동시장상권의 류동 인구는 28% 증가했으며 신세계쇼핑센터는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구아그룹은 200만원 상당의 소비권을 투입했고 중동신생활의 설 선

물 대축제는 3월 5일까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 길림일보

뢰봉택시 자원봉사자들 길림역에서 편의 서비스 제공



뢰봉택시대대 자원봉사자들이 '빨간 조끼'를 입고 학생들의 짐을 들어주고 승차대기를 안내하고 있다.

새 학기 개학과 '뢰봉 따라배우기 달'이 겹치며 길림시의 여러 대학교 등교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대중교통 수요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길림시교통운수총합행

정집법지대는 길림시뢰봉택시대대와 협력하여 기차역과 학교 주변 등 류동량이 밀집된 구역에서 편의 서비스와 교통질서 보장 특별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 길림일보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

'3.8'절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3월 8일,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는 본 협회 활동실에서 '3.8'국제로동부녀절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협회 사업보고 진행

김병희 회장은 이날 협회 사업보고에서 지난 한해 동안의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한해를 전망했다. 김회장은 올해 "협회 로후 건물 및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리영복, 박복자 등 로회원들과 반석시홍광중학교, 반석시 조선족실협소학교, 조선족유치원 퇴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3만여원의 성금이 모금되었다."고 밝히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반석 출신의 중국천진국제그룹해운유한회사 심경철 총경리가 2,000원을 협회에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은 협회 난방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또 2026년 새로 가입한 신입 회원 1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법치 교양 강연 진행

행사에서는 반석시인민검찰원 제2부 위위 주임을 초청하여 반석시조

선족로인협회에서 수백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 예방 법치 교양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협회 회원들의 법치 의식과 사기 예방 능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3.8'절 문예행사 개최

행사에서 협회 지도부 성원들이 전체 회원들에게 '3.8'국제로동부녀절 축하 인사를 올린 뒤 본 협회 회원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문예공연과 율놀이 등 활동이 펼쳐졌다.

협회 류대진 부회장은 이번 행사는 "회원들이 화합을 다지고 법률 지식을 습득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병희 회장과 류대진, 김태식, 장영옥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윤영진을 중심으로 탄탄한 체계를 갖춘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는 현재 35명 당원간부를 포함한 270여명 회원이 활동중이다.

협회는 반석시 해당 부문으로부터 민족단결진보상과 우수협화상을 수차례 수상하는 등 영예를 안았다. / 차영국기자



서란시 오적촌, 말 사육으로 치부의 길 개척



오적촌의 말 사육장

말띠해를 맞아 서란시 개원진 오적촌의 숲속 설원에서는 비동비동 살이 오른 준마들이 여유롭게 노닐고 있다.

출하를 앞둔 식용 말을 바라보는 사육장 주인 조우망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이번에 출하하는 10여마리의 식용 말은 마리당 순수 이익이 약 2,000원에 달합니다." 조씨는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라 정책적 리점을 활용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원진은 오적촌의 삼림자원과 짝자원을 바탕으로 '축사+산림 방목' 사육 모델을 탐구하고 스마트형 관리를 추진하며 우량품종 번식 시

스템을 완벽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수의사의 원격 진단도 가능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라며 그는 감탄했다.

정책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진과 촌 차원에서 산업을 가공 및 문화관광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오적촌당지부 서기 장백문은 "촌당지부에서 자원 통합을 주도하여 규모 경영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소득 증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생태 사육에서 문화와 관광의 융합으로, 오적촌은 '말 한마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며 향촌 진흥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길림일보